**Creators**

Eliot Porter

Sangyon Joo

David Ellingsen

Kirk Crippens & Gretchen LeMaistre

Datz's Collab. Artists

**Collaboration with**

Datz Museum of Art

Datz Press

Teal Table

B——E

자연, 그리고 우리가 이어갈 대화

**45th Exhibition**

# Nature, Conversations

**Apr 20 - Jun 12, 2020**

# Nature, Conversations

**자연, 그리고 우리가 이어갈 대화**

Directed by **최주연** Jooyeon Choi

현재 일어나는 많은 현상과 사건 속에 우리는 깊은 사색에 빠지게 된다.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지금 우리가 던지는 미래에 대한 질문은 "무엇이 인간다운 삶인지", "자유로운 인간의 길은 무엇인지", "자연과의 공감은 무엇인지" 아닐까 싶다. 문명사회에 길들여진 우리들... 너무나 치열하게 살고 있으며 자연의 순응보다는 대적하고 있지 않나 라는 반성을 하게 된다. 잠시 멈추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기획된 전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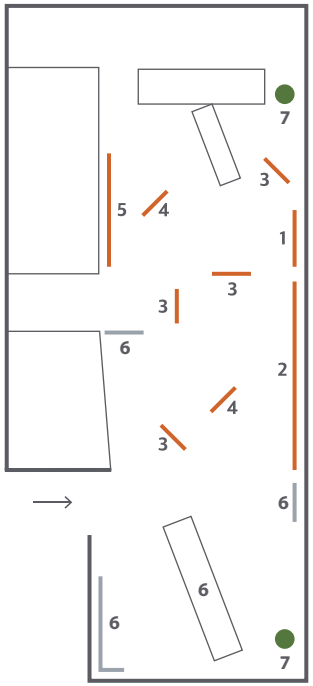
이미 170여 년 전 사상가이자 문학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월든이라는 호수에 홀로 거주하는 모험을 시작하며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위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대자연(Nature), 호수 월든(Walden)에서 소로우가 얻은 깨달음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2016년 닻미술관에서 기획된 전시 "월든으로부터"에서는 사진작가, 엘리엇 포터, 데이비드 엘링슨, 주상연, 커크 크리펜스 & 그레첸 르마이스트레 등과 함께 인간의 지성과 자연의 영감에 대해 논하였다.
이번 전시 "Nature, Conversations"는 닻미술관의 월든 전시의 일부를 스페이스 비이 공간에 재구성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예술로 창작해온 닻프레스의 출판물을 통해 동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한다.

스페이스비이갤러리 인스타그램 @be_archived
윤현상재 인스타그램 @younhyun_official

www.spacebe.co.kr

# Exhibition Plan

**전시실 평면**




### 1. 엘리엇 포터 Eliot Furness Porter

그는 미국의 생태학자이자 자연을 소재로 한 컬러사진의 대가이다. 하버드 대학에서 화학공학과 의학공학을 전공했다. 하버드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 1930년경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와 안셀 아담스를 만나면서 본격적인 사진작업에 몰두하게 된다. 뉴욕 맨하탄에 있는 291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했으며, 『월든』에 관한 작업이 사진집 『In Wilderness is the Preservation of the World』 (1962)로 출판되어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그는 평생을 생태학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전 세계 다양한 장소를 촬영하였고 1965년부터 시에라 클럽의 이사로 활동하며 환경 보존운동에 동참했다. 1990년 아몬 카터 미술관 Amon Carter Museum에 자신의 전문 아카이브를 남겼으며, 현재 그의 작업들은 다양한 표본과 컬렉션 가이드, 교육용 지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 2. 주상연 Sangyon Joo

월든 프로젝트의 기획자이자 사진가로서 여러 번 호수를 방문하여 촬영하였다. 호수 표면에 그려지는 바람의 결, 지속적인 움직임과 고요함, 순간과 영원, 시공간의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파동이 9장의 사진에 담겨 음악처럼 흐른다. 월든 호수의 이름은 World in Pond(월드 인 폰드: 호수 속의 세상)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하늘과 땅의 중간적 속성을 지닌 작은 세상으로서의 월든을 필름에 담는다. 현재 닻프레스와 닻미술관의 대표로서 서울과 미국을 오가며 출판과 전시기획에 참여하고 있다.

### 3. 데이비드 엘링슨 David Ellingsen

데이비드 엘링슨은 5대째 벌목사업을 해온 집안에서 성장하며 환경문제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된 캐나다 출신의 사진가이다. 그의 선조들에 의해 베어진 나무둥지를 소재로 치유와 성찰의 메세지를 담은 설치작업이 바로 <최후의 자리: The Last Stand> 시리즈이다. 그는 잘린 나무밑동을 천으로 감싸주거나, 죽은 나무에 배경을 치고 영정사진을 찍는 과정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환경적 메시지를 담아낸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자성의 태도가 담긴 실천적, 자기 고백적 작업은 시각적으로도 강렬하다.

### 4. 커크 크리펜스 & 그레첸 르마이스트레 Kirk Crippens and Gretchen LeMaistre

샌프란시스코에서 작업하고 있는 커크와 그의 친구 그레첸은 10년 넘게 공동작업과 개인작업을 병행해 오고 있다. 그들의 <살아있는 옹이: Live Burls>시리즈는 국립공원의 훼손된 나무를 찾아 4년 동안 기록한 결과물이다. 오래된 나무의 옹이(Burls)는 아주 귀해 밀렵꾼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훼손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작업을 통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와킨스와 머이브릿지를 계승한 8×10인치 대형카메라와 흑백 젤라틴 실버 프린트의 이미지가 절제된 감정을 사실적으로 전달한다. 이 사진들은 인간의 모순된 상처와 현대 소비사회의 모순을 대면하게 하는 실증의 힘이 있다.

### 5. 핸드릭 폴 Hendrik Paul

핸드릭 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사진가로 전통적인 실버 젤라틴 형식으로 인화하는 흑백 사진 작업을 통해 자연의 고요하고 명상적인 장면과 호흡을 포착하고 있다. 그의 첫번째 작품집 『엘레멘텀 Elementum』은 사색의 길을 걷는 작가의 여정이 담긴 아코디언 형식의 책이다. 작가와 함께 숲을 따라 걸으며 나무와 풀들의 흔들림을 관찰하고, 밤하늘의 빛을 바라보거나 흐르는 물과 파도를 느낄 수 있다. 작가는 자연의 4대 원소(흙, 공기, 불, 물)를 나타내는 라틴어 단어'elementum'을 시리즈의 제목으로 사용했다. 자연을 구성하는 물리적 원소들은 그의 풍경 가운데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다.

*이번 기획에는 **6. 닻프레스 Datz Press** 출판물과 **7. 틸테이블 Teal Table** 의 'Commune with Nature' 가 함께 합니다.